이른 폭염에 바다 수온 상승… 전남 양식어가 '비상'

서남해 등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 16일 빨라…평년 대비 수온 1도 ↑ 작년 전남 990개 어가 574억 피해 도, 긴급방류·조기출하 등 비상대응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해양 수온이 상승하면서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 다 보름 이상 빨리 발령돼 양식 어가에 비 상이 걸렸다.

전라남도는 9일 내만을 포함한 서해·남 해 연안 일부 지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 령됨에 따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완료하고 즉각적인 비상 대 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짧고 폭염이 예년 보다 빠르게 시작돼 주의보 발령 시기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졌다.

현재 전남도 연안수온은 21.1~30.7도 를 기록하며 평년 대비 1도 내외의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고수온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 취약지역 17개소에 현장대응반을 즉시 배치했으 며, 특보 해제 시까지 먹이공급 중단, 액 화산소공급 등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위험 분산을 위한 긴급 방류와 조 기출하 정책도 적극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와 함께 '조기출하 상생협의체'를 구성,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15억 원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긴급 방류 지원금은 어가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33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대응 장비 가동 여부 등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462억 원 규모의 장비와 자재를 신속히 지원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양식재해보험 가입 홍보 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대비했다. 2024년 1669건(38%)에 그쳤던 보험 가입률이 2025년 1773건(40%)로 상승 했으며, 주요 양식어종인 전복은 75%, 넙 치는 78%의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6월 말에는 여수 남면 해상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민·관·경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대응 체계를 정비했으며, 주의보 발표 전날인 8일에는 22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어업재해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복구 요령과 주요 민원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창우전남도친환경수산과장은 "지난 해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사 전 대비를 통해 고수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어민들께선 먹이 공급 중단, 조기출하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잘지키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선 7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이어진 고수온의 영향으로 여수, 고흥 등 10개 시군 990개 양식 어가에 574억 원 규모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고수온 특보 발령 이후 양식장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준비 체계로서 효과적 현장 대응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국회 포럼'에서 전진숙·안도걸·박 주민 국회의원 등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

위기단계 '관심'…이동제한 해제

전라남도는 구제역 이동제한이 모두 해 제됨에 따라 9일부터 위기 단계를 '주의' 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방역 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암 도포 방역지역 해제 검사에서 자연감염항체가 추가로 검출돼 3주간 이 동제한이 연장된 4개 농장에 대한 임상·정 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 따른 조치다.

자연감염항체는 외부 바이러스 감염 후약 2주 후 생성되는 항체로 바이러스 순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전남도는 지난 6월15일 영암 도포 방역 지역을 마지막으로 4개 방역지역 모두 이 동제한을 해제했으나, 자연감염항체가 추 가로 검출된 4개 농장은 이동제한을 지난 5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소독 등 방역조 치 강화에 나섰다.

이영남전남도동물방역과장은 "어려운 방역현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를 비롯한 시군, 관계기관에 감 사드린다"며 "철저한 예방접종과 외부인 차단,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 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3월1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4월13일까지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돼지 5), 총 19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허브 최적지"

국회서 서남권 복합단지 조성 포럼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한 목소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9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서남권첨단바이오헬스복합 단지 조성 전략' 국회 포럼을 열고, 글로 벌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 산했다.

이번 포럼은 안도걸·신정훈·서미화·전 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 와 전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선경 K-헬스 미래추진단장 등 의료바이오산업 전문가 와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 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정책위의 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 를 통해 포럼 주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 했다.

참석자들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남· 광주의 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를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근거 법 령 개정의 시급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 를 형성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선경 K-헬스미래추 진단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앞으로 한 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마 중물 역할이 필수적이며, 국가 균형발전 과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해 호남권에 추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강조 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과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등 패널들도 "전남·광주는 이미기초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의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투자가 더해진다면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백신·면역치료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암 치료제 국산화, 백신 자 급화,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 문제 등 국 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GC녹십자와 써모피셔 등 바이오 기업 들도 포럼에 참여해, 백신·면역치료 및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적 지원 필요성과 향후 발전 비전을 공유 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순은 지난 20 여 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기반을 이미 갖췄고, 최근에 는 디지털화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광주의 첨단 의료기기 인프라가 더해지면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큰 성과 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시면 기계

본 회사는 2025. 07. 09. 임시주주총 회에 갈음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였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해산 및 청산공고(1차)

2025. 7. 10. 주식회사 경도산업 청산인 김대용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입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 062)222 - 2255, HP. 010 - 9441 - 7000

, 🎇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	역	구례
인	원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0	きフ	(•	•		1부
■ 주민등록등본															
■ 자기소개서 ·	•	•	•	•	•	•	•	•	•	•	•	•	•	•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 수 처 : 우편 접수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